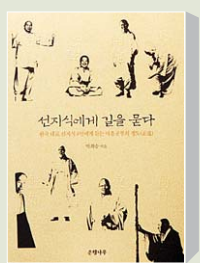


수행 살림 공개 대표 선지식 8인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 박희승 지음 은행나무 펴냄 1만5000원

한국 대표 선지식 여덟 분이 선방 지대방에서만 회자되던 수행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이 펴낸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를 통해서다. 이 책은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 주관하는 간화선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자가 5년 전 월간 <법화와 설법>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

진제(75) 혜정(76) 고우(72) 우룡(77) 무비(66) 근일(69) 무어(68) 혜국(62) 스님 등 조계종 큰스님들의 깨우친 경지와 수행 방법, 일상생활 등이 진솔하게 정리돼 있다.

책에서 혜정 스님은 “화두를 잡구 하던 중 벽이 사라지고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경계를 체험한 뒤 확실한 발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우 스님은 불경을 읽다가 <육조단경> ‘정혜불이품(定慧不二品通)’에서 ‘통류(通流)’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불교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며 “자기를 비우면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우룡 스님은 “<능엄경>을 볼 때 아난이 돼야 하고, <금강경>을 볼 때는 수보리가 돼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국 스님은 “머리에 발우를 올려놓고 참선하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발우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찰나에 내가 없어서 버려더라”는 체험을 소개했다.

김성우 기자

전문성왕 아쇼카의 숨겨진 이야기

인도철학자 이거룡 교수 아쇼카 왕 일생 연구 결과 답아

유교의 한무제, 기독교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비견되며 불교가 세계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쇼카(Ashoka·阿育王) 왕. 불법을 수호한 전문성왕(轉輪聖王)으로 불려진 아쇼카 왕을 본격 소개한 단행본이 국내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도철학자인 이거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문성왕 아쇼카>를 통해 고대 인도내의 지역종교였던 불교를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한 아쇼카 왕의 일생과 당시 마우리아 왕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저자는 책에서 흔히 깔링가국 정벌에서 10만 명을 학살한 일을 후회해 불교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던 아쇼카 왕이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이미 불교도였으며,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참회해 더욱 독실한 불자가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99명의 이복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설화에 대한 규명 등 그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잡고, 남전(南傳)과 북전(北傳)으로 갈린 상반된 서술들을 비교해 아쇼카 왕의 일생 및 당시 인도의 정치, 행정, 영토, 문화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아쇼카 왕이 전문성왕으로 칭송된 것은 그가 정복전쟁을 참회한 후, ‘다르마(法)의 길’에 따라 자기 백성을 인도했기 때



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석주(石柱)를 세워 붓다의 가르침을 기렸다. 왕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포교사로 보냈을 정도로 해외포교에 열성적이었다. 이거룡 교수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서도 힌두교, 자이나교 등의 가르침을 포용한 결과 역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던 아쇼카 왕의 삶은 다종교사회인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문. 그는 공공사업을 벌여 병원과 급식소를 세우고 의약품과 식량을 공급했으며, 곳곳에 가로수와 과수를 심고 우물을 파 분수와 휴게소를 세웠다. 심지어 가축병원을 세우고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전법(轉法)에 대한 왕의 공헌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불멸 후 8등분 됐던 불탑은 왕에 의해 나라 전역에 8만4000개의 탑과 사원으로 거듭났으며 붓다의 행적

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석주(石柱)를 세워 붓다의 가르침을 기렸다. 왕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포교사로 보냈을 정도로 해외포교에 열성적이었다. 이거룡 교수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서도 힌두교, 자이나교 등의 가르침을 포용한 결과 역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던 아쇼카 왕의 삶은 다종교사회인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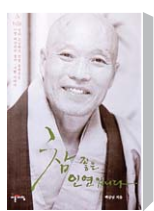
도파인사 펴냄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일본 종파불교 역사·문화 답아

일본불교사 가와사키 쓰네유키 외 · 계한 스님 옮김 우리출판사 펴냄 1만1000원

일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종교와 종파를 창조해 왔다. 저자들은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일본불교사에서 찾는 것은 역사가에게 부여된 책무”라며, 시대 전환기마다 발생한 새로운 종파를 사회·정치·사상·종교적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했다. 책은 스나라 시대의 불교 스테이인 시대의 불교 스텐도교의 성장 스가마쿠라 시대의 불교 스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와 구불교의 동향 스메이시 시대의 불교 등 연대별로 신 불교의 성립 배경과 변화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일가 41명 귀의 일타 스님 이야기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백금남 지음 이문아침 펴냄 1만2000원

친·외가를 포함해 41명이나 불법에 귀의한 어느 가문의 실화들. 그곳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일타 스님(1929~1999)을 통해 들려준다. 백금남 소설가가 오른손가락 중 열두 마디를 ‘연지연향(燃指燃香)’ 했으며, 말년에는 그것에서 생사리가 나오기도 한 선사이자 율사이던 일타 스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옮겨놓았다. 책은 불교사상 전무후무하게 41명 대가족이 출가한 불연(佛緣)과 생사를 넘나들며 수행에 전념한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평생 중생을 위해 연꽃 같은 웃음을 잃지 않은 일타 스님의 법문도 되새기게 된다.



우리 아이에게 읽어줄 불교이야기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고은 지음 · 한태희 그림 지형 펴냄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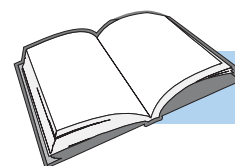
“옛날에 말이야..”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말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필수.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이 오르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인 고은 선생이 불경에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27편의 불교 이야기를 엄선,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책은 부처님의 전생과 출가, 수행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윤회, 업, 인연 등의 심오한 불교사상을 아이들에게 맞게 재구성해 담아냈다. 우리 전통의 색깔과 문양을 잘 표현해내는 한태희 화가의 그림을 함께 담아내 동심을 사로잡는다.



불타 입멸 통해 생사 문제 연구

불타의 입멸에 관한 연구 안양규 지음 민족사 펴냄 2만원

참선은 생사(生死)로부터의 해탈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불타의 입멸(入滅)은 깨달음의 본질을 밝히는 입멸에 틀림없다. 이 책은 부처님 시대에 편집된 팔리어 주석서와 아비달마 논서들을 활용, 불타의 입멸에 관한 논의가 불교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초기불교와 부처불교, 대승불교의 불타관과 열반관의 변천을 자연스럽게 정리했다. 저자는 특히 불타고사의 주석을 통해 존다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물이 결코 불타의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불서광장



무엇이 우리를 불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종사르 짐양 캔세 지음 이기화 옮김 예지 펴냄 1만800원 영화 제작도 하고 글도 쓰고 예술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구에 불교를 알린 은 티베트의 스승 캔세. 그는 비 불교 국가의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가 가장 주목받은 것은 ‘4법인’이다. 사법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는 공식이다. 그러면서 불교의 의례의식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다.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명범 스님 지음 씨아이알 펴냄 12만원 중국역사에 있어 당나라와 송나라의 시대는 ‘선의 황금시대’다. 이 시대 선의 활발한 기상이 세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그동안 선사들의 황보에 주목하느라 이 질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송나라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는 찬란한 예술작품들에 알음이 배어 있다. 그 주옥같은 예술들의 기반을 이룬 선의 정신을 연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천착이고 불교학의 영역확장이다.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제운 스님 글 · 그림) 청년정신 펴냄 1만5000원 책의 제목은 유명한 달마의 ‘안심법문’이다. 책의 부제가 ‘달마와 함께하는 선 여행’이듯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와 화두를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운 스님이 일사상을 통해 간져 올린 지혜의 통찰이 돋보인다. 좌선 대신 선화로 수행을 해 온 제운 스님이 그림에 붙인 화제들은 스님이 ‘그림 선’을 대하는 마음이고 닮는 마음이다. 화제들의 풀이를 차근차근 읽다보면 달마의 진면목이 눈앞에 나타난다.



즐거운 수행 김정민 지음 다산초당 펴냄 1만3000원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저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상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만난 위빠사나 수행은 저자에게 삶의 정신적 문제를 뿌리 채 치유하는 매력적인 힘이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수행. 저자는 우선 욕망 줄이기를 강조한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다음에는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체득이다. 명상은 즐거운 삶을 이루어 주는 힘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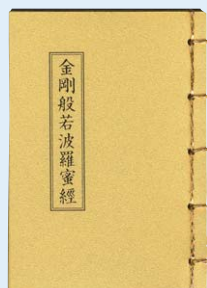
내 몸 희망 보고서(아보 도우루 · 히로사치야 공저) 이운정 옮김 부광 펴냄 1만3000원 <면역혁명>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등으로 알려진 아보 도우루 박사가 불교학자 히로사치야 박사와 함께 집필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 지침서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과학적 의학보다 인체에 유익하다는 아보 도우루 박사의 이론과 병을 적대시 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여기고 서서히 치유하는 히로 사치야 박사의 이론이 결합된 것이다. 두 저자가 번갈아 가며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 읽기가 흥미롭다.



변형(오쇼 지음) 이선화 옮김 시유리 크리슈나다스 펴냄 1만원 명상 열풍의 전원지 오쇼의 변형 타로다. 점성술이 아니라 명상을 위한 카드다. 6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변형 타로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다. 웃음이라는 타로를 꺼내고 하루정도 웃음을 묵상하며 살 수도 있다. 소개되는 카드들이 어느 날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세계의 위대한 전통들을 집약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품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성된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기증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장량 의식사 용도 가천도

건강백세 이지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격의료 '할'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로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들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정맥,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염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다
•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운이 발생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상화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운이 발생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하여 있어 썩음을 방지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또 거름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음(고온 60℃)보다 높은 고열(80℃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몸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정수하세요.

◆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느라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요건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맡길 처리

우.402-202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연락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역 (이자빌딩 1505호)

결혼정보회원모집

초혼 재혼 (불자 자녀)

불자 자녀 男女 서로가 정보를 몰라서 혼사를 못 이루는 가정에 해상자비회에서는 신뢰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나아가서는 사할 스님들의 자문도 받고 다각적으로 신상 파악하여 본인 소개서 희망사항들을 여러모로 탐색하여 신빙성이 확실할 때 男女의 만남을 주선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방법

1. 본인소개서(상세히 기록)
2. 직장 확인서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자택 유, 무
5. 사진 명함판
6. 다니는 사찰명

* 통신비로 회비 3만원 동봉

E메일 http://cafe.daum.net/kimsangrok